

하우어워스와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하우어워스와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1. ‘덕의 공동체’와 ‘성화’의 문제
2. 교회의 덕목으로서의 ‘교회됨’

III. 나오는 말

* 이 글은 2012학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ABSTRACT •

Hauerwas on Church as the Community of Character

Moon, Si-Young

What's the most important task of church in these times? To respond to question, this paper studied on 'church as the community of virtue' in Stanley Hauerwas's ethics. As we know, Hauerwas earned the nickname, 'ecclesial ethics' for his ethics. Focusing on Jesus narrative and church, Hauerwas insists that the first task of church is being itself.

This paper views church as moral agency, school of virtue, and community of character according to Christian communitarianism. Especially, the Christian communitarianism draws strength from the increasing dissociation of church and civil society in the western world. It has features of virtue ethics. And it has to be understand from the context of virtue, community, and narrative.

Most of all, this paper emphasized the moral significance of church as the community for enhancing Christian virtues or character. In this meaning, church of ecclesial ethics would be interpreted as the school of virtue or community of Christian character.

In spite of criticism of 'sectarian withdrawal', the ecclesial ethics of Hauerwas gives very important insight for church in Korean context. But, the most essential task of Christian virtue ethics must be transformed from peace to being church itself. In short, the focus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church must be a community of character via Jesus narrative, (2)the most important virtue of church in Korea is 'being church itself'.

Key words: Ecclesial Ethics, Being Church Itself, Christian Communitarianism, Church as moral agency, Community of Character, School of Virtue

I. 들어가는 말

교회가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보다 지탄과 비난을 받는 오늘날의 맥락에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윤리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교회의 자정능력이 바닥났음을 단언하면서 시민적 비난과 정죄와 심판을 통해 교회를 몰아세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교회가 윤리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노력 혹은 '교회됨'을 위한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은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라는 별칭을 얻은 하우어워스(Stanley Haueras)의 교회에 관한 다층적인 관심 중에서 특히 '덕의 공동체' 혹은 '성품공동체'(a community of character)로서의 교회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살펴보고자 한다.¹⁾ 이 연구가 한국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성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하우어워스와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1. '덕의 공동체'와 '성화'의 문제

하우어워스가 제안하는 교회의 윤리적 과제 중 하나는 '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독교공동체주의'(Christian communitarianism)와 '성화'(sanctification)가 핵심개념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1)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대한 비판 중 거스타프슨(J. Gustafson)이 제기한 소종파적 퇴거(sectarian withdrawal)의 우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일 듯싶다. 이에 대해 하우어워스가 자신의 관점은 소종파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대목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하우어워스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기보다 각각의 주제들을 다루는 과정에 포함시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글이 추구하는 것은 '하우어워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와 교회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이기 때문이다.

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우어워스를 ‘소중파적 퇴거’의 유혹 또는 ‘자폐적 교회관’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교회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설정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염려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목이지만,²⁾ 하우어워스가 교회윤리를 제안하는 맥락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우선되는 관심일 듯싶다. 맥락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통해서만 하우어워스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과 균형 잡힌 이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1) 교회와 공동체적 윤리인식

하우어워스의 관점을 하나의 개념이나 문장으로 담아내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지만, 그의 윤리 개념 근간에는 ‘도덕공동체로서의 교회’(church as moral community)가 전제되어 있다. 이는 현대영미철학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과 연관된 공동체주의의 기독교적 수용 혹은 ‘기독교공동체주의’라는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할 대목이다.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테일러(Charles Taylor), 그리고 샌델(Michael Sandel)을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은 도덕에 관한 설명에서 계몽주의 이후 특세한 자유주의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우어워스는 이들의 대표격인 맥킨타이어의 철학의 가장 가까운 신학적 유비를 담아내고 있다.³⁾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주의에는 도덕적 결함이 있다. 이 점에서 하우어워스는 영미철학계의 공동체주의자들과 궤를 같이한다. 하우어워스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윤리 즉 역사적 배경, 종교적 신념, 형이

2) 이에 관해서는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집(2010)를 참고할 것.

3)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5

상학적 관념도 배제한 윤리를 추구하는 기획은 성취될 수 없으며, 도덕적 진공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우어워스는 특히 맥킨타이어의 관점을 수용하여, 모든 개별적 합리적 행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될 도덕의 근거를 찾으려는 '계몽주의적 기획'에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무제약적 자아(the unencumbered self)의 관념에 비판적이다.⁴⁾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덕스러운 사람을 육성할 기반이 결여하고 있다. '도덕'이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공정한 경쟁의 규칙에 묶여있도록 만드는 것이 고작이다. 결정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도덕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윤리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사회는 개인 혹은 가정이 국가에 저항할 힘을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덕목들을 함양할 수 없다.⁵⁾

이처럼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맥킨타이어와의 깊은 교감을 엿보게 하는 흔적들을 담아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바로 하우어워스가 교회를 향하여 '덕의 학교' 혹은 '성품의 공동체'가 되기를 요구하는 맥락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교회가 신뢰와 덕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는 자성도 깔려있다. 교회는 어느 사이에 청소년이 도덕을 배우는 곳쯤으로 전락했고, 심지어 '하지 말라' 혹은 '해라'의 명령과 같은 관습적 도덕 정도를 가르치는 곳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평가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⁶⁾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이러한 현상은 칸트 이후 야기된 신학적 위기를

4) *Ibid.*, p.51

5)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譯, 『교회됨』(북코리아, 2010), 165면 *다음 각주부터는 『교회됨』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6) 『교회됨』, 173면

보여주는 표징의 하나이다. 따라서 하우어워스는 칸트적 기획을 추종하기보다 공동체와 덕의 전통을 회복함으로써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덕성훈련의 장이 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우어워스가 제자도의 실천을 비롯한 교회적 행위(ecclesial activities)들을 주목하고 교회론적 지향(ecclesiological orientation)을⁷⁾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거스타프슨(James Gustafson)이 말한 ‘소종파적 유혹’의 비판은 하우어워스에게 치명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작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관점이 소종파적인 것이 아니라는 일관된 반응을 보인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가 현실정치의 도전에 응답해야할 방식은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섬기되 그 자신의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⁸⁾

하우어워스의 이러한 태도를 소종파 논란을 외면하는 외골수라고 몰아세우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퍼저슨(David Fergusson)은 하우어워스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퍼저슨에 따르면, 소종파로 분류되는 교회들과 달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관에는 독특한 기독교 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시민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있다.⁹⁾ 물론, 퍼저슨이 하우어워스를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다. 퍼저슨은 바르트 신학을 근거로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성령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

7)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p.6

8) 『교회됨』, 172면

9)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pp.76-77.

의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자유주의가 태동된 배경에 보편성 추구를 통해 민족과 문화들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퍼거슨의 관점이다.

윤리의 교회적 관심을 강조하면서도, 하우어위스와는 그 방향과 의도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머지(Lewis S. Mudge)는 WCC의 '교회론과 윤리'(ecclesiology and ethics)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윤리는 교회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교회론은 윤리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말하면서도 하우어위스와는 반대되는 제안을 내놓는다. 특히, 교회를 윤리적 대안 공동체(counter-community)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글로벌 이슈 및 NGO문제 등 교회를 둘러싼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하우어위스와는 윤리적 지향점이 분명히 달라 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평가들을 참고하면서, 하우어위스의 교회관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우어위스 스스로 소종파 그 자체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균형 있게 평가하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 듯싶다. 특히 교회를 덕의 공동체 혹은 성품공동체로 규정하고 덕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이해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들이 있다.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덕의 근간으로서의 예수 내러티브가 그것이다. 허트(Jennifer A. Herdt)가 말한 것처럼, 하우어위스의 중요성은 특히 기독교적 독특성 즉 내러티브와 성경, 공동체와 교회를 강조한 데 있다.¹¹⁾ 하우어위스의 교회윤리를 자폐적 교회관 혹은 소종파적 위험이라는 틀에만 넣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의 고민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0) Lewis S. Mudge, *The Church as Moral Community: Ecclesiology and Ethics in Ecumenical Debate* (New York: Continuum Publishing Group, 1998), p.12

11) Jennifer A. Herdt, *Putting on Virtue: The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345

사실,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대한 이해에서 소중파적 경향성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기독교가 덕을 말하는가?’의 문제일 듯싶다. 코트바(Joseph J. Kotva, Jr.)가 지적했듯, 현대기독교윤리학에서 덕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덕 윤리와 기독교의 양립가능성 혹은 상호연관성에 대한 질문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¹²⁾ 대부분의 경우, 덕 윤리와 기독교의 양립불가능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퀸(Philip Quinn)은 기독교의 전통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보다 칸트의 의무론과 더 친숙하며, 무엇보다도 덕 윤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일지 의심스럽다고 한다.¹³⁾ 테일러(Richard Taylor)는 기독교와 덕 윤리를 안티테제의 관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윤리를 지녀야 하며, 이러한 의무론적 특성을 버리고 덕 윤리를 취하려 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는 뜻이다.¹⁴⁾

이러한 입장들과는 달리, 정작 하우어워스는 덕 윤리와 기독교의 상호연관성을 당연한 것처럼 간주하고 있으며, 양립가능성 문제에 큰 염려를 하지 않는다. 물론, 하우어워스도 덕 윤리가 기독교적 관심을 표현해주는 최선의 틀인가 여부에 의구심을 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케나(William Frankena)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평가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프랑케나는 종교가 의무론보다 덕론에 관심 가져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윤리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덕 윤리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¹⁵⁾ 하우

12)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6), p.2

13) Philip L. Quinn, "Is Athens Revived Jerusalem Denied?" *Asbury Theological Journal* 45(1) pp.49-57

14) Richard Taylor, *Ethics, Faith, and Reas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5), pp.22-25, 77-87

15) William Frankena, *Ethic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3), p.66

어워스가 보기에, 이러한 경향이야말로 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대윤리학의 맹점이다.

하우어워스는 현대윤리를 '덕을 경시하는 윤리'라고 평가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¹⁶⁾ 덕 윤리를 성화(sanctification) 개념과 연계시킨다. 그는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삶』(*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에서 덕 윤리가 '성화'의 교리를 설명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다.¹⁷⁾ 이를 위해 칼뱅과 웨슬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개념을 성찰하고 이들 신학자들이 덕 윤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혹은 덕 윤리를 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덕 윤리와 성화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덕 윤리가 도덕의 초점을 행위(doing)에서 존재(being)로, 의무에서 성품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려는 관심이 작용한다. 이러한 관심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도 연관이 있다. 자유주의적 윤리에서는 원칙들을 제대로 적용하면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도덕원칙들이라는 것 자체는 도덕적 행위자의 문제 즉 과연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맥락에서만 의미를 얻을 수 있다.¹⁸⁾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현대윤리학이 덕을 경시하고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도덕의 필수요소를 놓친 것에 다름 아니다.¹⁹⁾ 현대윤리학은 덕스러운 사람의 육성 자체에 관심이 없고, 도덕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행위의 문제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행위'에 대한 관심 자체를 배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이

16) 『교회됨』, 227면.

17)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p.71

18)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p.49

19) 『교회됨』, 232면.

다. 행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기만과 ‘자기 의’(self-righteousness)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해야 하며,²⁰⁾ 교회는 이러한 성찰의 장이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우어워스의 관점인 셈이다.

따지고 보면, 현대윤리학은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도덕을 역사와 무관한 것으로 설명해 왔다. 특히 18세기 이후의 윤리학은 규칙, 원칙, 선의 개념, 그리고 도덕적 난제를 해결하는 각 단계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 결과, 규칙, 원칙,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닌 것인지 정확히 결정짓는 문제에 집중해 왔다. 이와 달리, 덕 윤리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분석보다는 행위자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윤리의 초점을 특정한 행위에서부터 ‘배경’으로 옮겨놓은 셈이다.

이러한 뜻에서, 덕 윤리의 핵심을 ‘존재’가 ‘행위’에 우선한다는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싶다. 덕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단은 이차적이다. 덕스러운 사람도 결단을 내리기는 하지만, 심층적인 도덕적 실제 즉 성품에 호소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도덕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나 결단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도덕적 자아 즉 성품의 형성과 함양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우어워스가 교회를 향하여 덕의 공동체 혹은 덕의 학교(a school for virtue)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예수 내러티브에 의한 복음적 성품을 육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라 하겠다. 다만, 하우어워스가 덕 윤리와 성화를 연계시키고자 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고 좁은 의미의 성화개념을 사용했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코트바가 하우어워스의 성화 개념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둘 사이의 연계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

20) 『교회됨』, 232면.

하우어위스가 성품과 덕, 죄와 은혜와 제자도의 개념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하지 못했다는 평가이기 때문이다.²¹⁾ 또한, 하우어위스가 자신의 신앙과 신학의 뿌리가 된 웨슬리 신학을 따라 성화의 문제를 현세에서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에 비해, 현세에서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아 점진적 성화론을 주장했던 칼뱅의 관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성화와 기독교적 덕성함양

교회를 도덕공동체로 인식하고 성화의 연계선상에서 덕성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한 하우어위스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독교는 어떤 덕목들을 훈련시켜야 하는가? 과연 그것들은 기독교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는 어떻게 덕성을 함양시켜야 할 것인가? 교회가 실행해야 할 덕성함양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교회가 훈련시켜야 할 덕목들에 대해 살펴보자. 하우어위스가 교회를 덕의 공동체로 말할 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네오-아리스토텔레스적 덕 윤리가 아니라 예수 내러티브에 의한 성경의 덕 윤리였다. 비록 덕을 말하는 형식과 구도는 맥킨타이어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기독교적 정체성과 특성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적 덕 윤리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교회를 덕의 학교 혹은 덕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데에는 일정한 재해석 혹은 전환이라는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21) L. Gregory Jones, *Transformed Judgment: Toward a Trinitarian Account of the Moral Lif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0), p.17

덕 윤리의 기독교적 전환은 하우어워스에게서 돌발적으로 표출된 것은 아니다. 맥킨타이어가 덕 윤리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에, ‘아우구스티누스 대안’(Augustinian alternative)을 주목했던 점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맥킨타이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적 관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비교하여 네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²²⁾ 도덕의 영역이 폴리스에 속한 선택적 그룹을 넘어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데로 확장되었다는 점, 죄와 은혜에 대한 관점 및 행위의 결정적 요소로서의 ‘의지’에 주목하게 했다는 점, 덕의 분류법이 변경되어 교만은 원죄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으로 간주된다는 점, 인간의 텔로스가 폴리스 생활의 범위를 넘어 영원한 삶을 통해서만 완성된다고 보았던 점 등이다. 덕 윤리의 차이, 변경, 전환 혹은 대안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이처럼 덕 윤리의 내용이 변경 혹은 전환되는 것을 두고 덕 윤리가 모호성 혹은 불확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겠지만,²³⁾ 덕 윤리가 역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물론이고 현대의 윤리학자들의 논의에서 덕목의 목록들이 각각 다르게 등장하는 것은 덕 윤리가 불완전하거나 모호해서라기보다 덕 이론이 역사적 맥락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을 덕 윤리가 지닌 상대주의적 경향성이라고 몰아세울 수도 있겠지만,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덕 윤리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p.115

23) 덕 윤리에 대한 이해와 비판의 문제는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겠다. 홍성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선학사, 2005)

하우어위스에 따르면, 덕목들의 전환 혹은 변경이 나타나는 것은 덕 윤리가 인간을 역사적 본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²⁴⁾ 본래, 덕(arete)이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탁월함(excellence)을 뜻한다. 눈의 덕은 보는 것이요, 칼의 덕은 자르는 것이며 말의 덕은 달리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덕은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덕 윤리를 역사성의 문제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것은 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각각의 시대가 처한 독특한 도덕적 정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덕목들에 관한 신학적 설명 혹은 전환에서 아쉬운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노력에 비해 조직적인 구성 혹은 설명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제시한 바울의 경우(갈5:22~23)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두고 초대교회는 굳이 일목요연한 덕목의 목록을 만들려 하지 않았고 그중 어느 특정 덕목이 인간의 본성에 더 근본적인 것이 되리라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다.²⁵⁾ 아마도, 덕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체계적인 수준으로 요청되지 않았거나 심화되지 않았던 탓일 듯싶다.

심지어 덕의 기독교적 적합성을 말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이 함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간의 텔로스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은 모든 덕은 본질적으로 자기애의 표현이요 화려한 악덕에 지나지 않으며, 덕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네 가지 형식이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24) 『교회됨』, 202면

25) 『교회됨』, 237면

절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맡기는 것이다. 용기는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다. 정의는 사랑의 대상만을 섬기는 것이요 그 결과로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다. 신중은 저해가 되는 것과 도움이 되는 것 사이에서 현명하게 구분 짓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대상은 선 중의 선, 최고선, 완벽한 조화이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²⁶⁾

그런가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에도 덕목의 목록이 다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사상 및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종합했다. 자연적 덕목들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함양되는 것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학적 덕목들은 우리 안에 주입되어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우어워스의 경우에도 덕목의 변경은 예외가 아니다. 하우어워스는 ‘평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평화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관심은 여러 책들의 서문마다 자신의 이름 앞에 항상 표기하는 ‘평화’(peace)의 상징성에서 잘 드러난다. 하우어워스가 자신의 신학적 요점을 말한 부분에서 평화에 대한 강조를 빼놓지 않은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²⁷⁾ 이처럼 하우어워스가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으며 요더(John H. Yoder)의 영향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내러티브에 대한 하우어워스 자신의 해석과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

26) Augustinus, *De mor. eccl.* 15. 23. 15. 25. ut temperantia sit amor integrum se praebens ei quod amatur, fortitudo amor facile tolerans omnia propter quod amatur, iustitia amor soli amato serviens et propterea recte dominans, prudentia amor ea quibus adiuvatur ab eis quibus impeditur sagaciter seligens. Sed hunc amorem non cuiuslibet sed Dei esse diximus, id est summi boni, summae sapientiae summaeque concordiae.

27) Stanley Hauerwas, *A Cross Shattered Church: Reclaiming the Theological Heart of Preaching*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p.145

할 수 있다. 하우어위스에 따르면,

평화는 무질서가 제거된 상태도 아니고 불의를 기초로 삼을 수도 없다. 평화는 진리 위에 세워진다. 거기에 기초한 질서는 결국 강제력에 의존하게 마련이다.²⁸⁾

이러한 인식은 자유주의가 개인의 욕구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결과적으로는 폭력과 전쟁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하우어위스는 현대사회의 전쟁과 폭력에 대한 관점들을 참고 하되, 평화에 대한 결정적인 단초와 방향을 기독교의 내러티브에서 찾는다. 하우어위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서, 평화란 인간의 합리적 능력에 관한 거짓 설명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평화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삶의 본래적 가치를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지속적 능력을 통해서 이제 막 체험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와 전쟁이라는 것은 도무지 양립할 수 없다는 확신을 기초로 한다.²⁹⁾

이러한 맥락에서, 하우어위스는 교회가 함양해야 할 기독교적 덕목에 평화를 정점으로 하여 소망, 사랑, 인내 등 성경의 전형적인 덕목들을 포함시킨다. 평화가 중요하기는 해도, 그것만이 기독교적 덕의 전부일 수는 없으며 평화를 위한 소망과 인내를 비롯한 여러 덕목들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듯싶다. 하우어위스에 따르면,

28) 『교회됨』, 76면

29) 『교회됨』, 198면

소망과 인내의 덕목들은 교회 이야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교회가 수행해야 할 모험은 소망을 통해서만 지지될 수 있으며, 소망은 인내에 의해 훈련된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때를 살고 있다. 교회란 하나님 이야기에 충실한 존재가 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다.³⁰⁾

이러한 덕의 기독교적 해석 혹은 전환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덕목들에 대한 관심이 덕 윤리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이다. 하우어워스의 설명법대로 하자면, 덕과 덕목들은 다르다. 덕은 개별 덕목들이 지닌 규범적 구체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자아에 대한 일반적 관점에 해당한다. 겸손, 정직, 친절, 그리고 용기 등의 덕목들은 당장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덕목들을 구현한다고 해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덕스러운 사람 됨’(being a person of virtue)이란 개별 덕목들과는 다른 차원 즉 인간의 자아 혹은 성품 및 인격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가 제안하는 덕목들은 그의 교회에 대한 인식과 연계된 것들로 구성된다. 하우어워스는 루터적 교회관보다 ‘여행의 메타포’(metaphor of the journey)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³¹⁾ 루터가 말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자들의 공동체의 그것이 아니라 성례리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서 성별하신 순례자들의 공동체로서의 이미지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덕스러운 삶은 모험에 비유할 수 있다.³²⁾ ...우리에게 필요한 신실한 이야

30) 『교회됨』, 21면

31) 『교회됨』, 194면

32) 『교회됨』, 247면

기란 순례자들에게 합당한 실천과 자기반성을 훈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제공해주리라 믿고 있다.³³⁾

말하자면, 하우어위스가 생각하는 덕의 공동체 혹은 덕의 학교로서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기독교의 내러티브에 의한 자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하우어위스에 따르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과연 교회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교회가 성경을 예배와 삶에 적용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특히, 교회에서는 인내, 용기, 소망, 그리고 사랑의 덕이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 하우어위스의 관점이다.

그에 따르면, 인내가 없다면 교회는 계시적 환상에 빠지고 말 것이며, 용기가 없다면 교회는 전통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고, 소망이 없다면 교회는 책무를 상실할 수 있으며, 사랑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삶의 모습을 구현하지 못할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덕목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덕목들은 성경의 내러티브에서 의미와 형식을 도출한 것들이며, 성경의 내러티브를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모든 덕목들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³⁴⁾

하우어위스의 이러한 관점은 덕에 대한 성찰이 그 시대의 윤리적 맥락에 대한 인식과 과제를 담아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하우어위스가 깊이 교감하고 있던 맥킨타이어의 네오-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기독교를 어설프게 혼합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현대기독교 덕 윤리의 방향성을 예수 내러티브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33) 『교회됨』, 288면

34) 『교회됨』, 247면

다음으로, 덕성함양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 습관을 통해 ‘제2의 천성’을 얻는다고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에는 충분한 타당성과 함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도덕성숙을 위해 어려서부터 일정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과연 어떤 종류의 습관이 신실한 성품계발을 독려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놓치고 있다.³⁵⁾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습관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습관의 소극적 측면에 주목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³⁶⁾ 죄가 습관화되면 결국 노예의지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습관을 항상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의 관심사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덕 윤리의 기독교적 이해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의 성품에 대해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던 것은 기독교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습관을 통해 덕을 함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덕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덕이란 획득되는 것이며, 인간이란 자신 안에 있는 주도성을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³⁷⁾

기독교의 관점에서, 성품과 덕이 스스로의 노력과 습관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자칫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쉽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 혹은 복종을 진정한 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겸손의 덕마저도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몫이기는 하지만, 인

35) 『교회됨』, 271면

36) John F. Harvey, *Moral Theology of 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 문시영 역, 『고백록, 윤리를 말한다』 (북코리아, 2011) 185-194면

37) Aristoteles, 최명관 譯, 『니코마코스 윤리학』(서광사, 1989) 92-93면 (1113b20)

간 스스로의 노력에 우선하여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³⁸⁾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위스는 교회를 통해 예수 내러티브에 의해 제자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성숙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훈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다양한 훈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다루시는 이야기를 깨닫고 그 이야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배우게 되는 훈육을 가리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을 개발시켜야 한다.³⁹⁾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위스가 제안하는 덕의 훈련방식은 특히 '제자도' 혹은 '도제관계'에 비유되는 성품의 훈련, 특히 예수 내러티브의 성품화에 집중된다. 특히, 순종을 비롯한 제자도 혹은 도제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여 이루어내신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는 것을 뜻한다. 하우어위스에 따르면,

칸트처럼 정언명법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주(主)를 닮아가기를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도덕철학에서는 제자도를 타올로 간주하겠지만, 제자도가 말하는 닮아감 즉 모방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제자도는 선형적 원칙들로 환원될 수 없고 혹은 그 원칙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도덕이란 선택에 의한 보편적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은 그분을 본받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적 확신의 본래적 가치에 속한다.⁴⁰⁾

38) Jennifer A. Herdt, *Putting on Virtue: The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p.346

39) 『교회됨』, 289면

40) 『교회됨』, 253면

같은 맥락에서, 하우어워스가 성만찬을 비롯한 예배와 예전에 주목하는 이유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성만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의존 및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통한 교회의 연합,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동일한 몸이 되라는 근본적 부르심의 표식이다.⁴¹⁾ 또한 우리의 주일예배는 가장 명백하고도 교회적인 방식으로 우리들 능력의 원천을 기억하게 하며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해법이 지닌 독창적인 본성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이다.⁴²⁾ 이러한 공동체적 예전과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 예수 내러티브를 실천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교회는 덕성함양의 시간과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최근의 공동체주의적 접근은 신약 및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들과도 연관될 수 있을 듯싶다. 예를 들어, 신약은 분석윤리의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으며, 영광송, 찬양, 증인됨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할 뿐이다. 초대교회의 윤리적 정황은 분석윤리의 용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다양한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 셈이다.

더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으며, 교회의 공동체적 정체성에 주목했다. 그들의 도덕적 위탁과 동기는 ‘교회적 소속감’(ecclesial belonging)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국가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견지했다. 세속권력이란 임시적일 뿐이며 심지어 타락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⁴³⁾

41) 이에 관해서는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비추어 본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한국기독교학회, 2012) 79집을 참고할 것.

42) Stanley Hauerwas & William W. Willimon, *Resident Aliens: A provocative Christian assessment of culture and ministry for people who know that something is wro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9) p.171

이는 바울서신에서 발견되는 종말론적 윤리관을 비롯한 기독교적 긴장감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우어워스의 기독교공동체주의는 이러한 흐름과 잘 들어맞는다. 하우어워스가 생각하는 교회는 성경의 내러티브라는 특수한 내용에 의해 삶을 형성하는 공동체이다. 이처럼 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보여주신 모범들에 대한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는 덕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⁴⁴⁾ 이것을 하우어워스는 자아, 정체성, 그리고 내러티브와 공동체라는 개념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자아란 우리가 만들어낸 그 무엇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의 구현자가 됨으로써 정체성을 얻는다. 이야기와 공동체에서의 해방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닌 이야기가 과연 신실한 것인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⁴⁵⁾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대안사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이야기는 기꺼이 그 이야기를 따르려 하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다.⁴⁶⁾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는 '나처럼 살고 내 모습을 본 받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컨대, 덕의 학교 혹은 성품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관심을 주목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그의 윤리적 제안에 대한 일방적

43)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pp.10-17

44) *Ibid.*, p.56

45) 『교회됨』, 287면

46) 『교회됨』, 290면

찬사 혹은 무비판적 수용이라고 몰아세우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해석과 관심들은 하우어워스의 윤리가 기독교의 ‘편더멘탈’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기독교윤리의 본격적인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해야 한다는 관심의 발로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교회의 덕목으로서의 ‘교회됨’

도덕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인식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네오-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의한 기독교적 덕의 오염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고 기독교의 독특한 덕 윤리를 교회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는 것은 하우어워스의 장점이다. 말하자면, 교회를 덕의 공동체로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 덕 윤리의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우어워스의 이러한 노력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 덕 윤리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덕의 강조는 자칫 공로주의에 기울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공로주의에 의한 기독교윤리의 오염을 경계했던 종교개혁자 루터의 경우가 그렇고, 근세초기의 ‘과격 아우구스티누스주의’(hyper-Augustinianism)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화려한 악덕’(splendid vices)에 기울어질 위험을 우려하여 덕에 관한 접근 자체를 문제시했던 ‘과격 아우구스티누스주의’에서는 덕에 대한 관심이 교만과 자기사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우어워스의 기독교공동체주의와 교회윤리는 이러한 흐름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듯싶다. 하우어워스는 그리스도인의 덕이 내러티브, 제도, 실천관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⁴⁷⁾ 말하자면,

47) Jennifer A. Herdt, *Putting on Virtue: The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p.350

덕이 '개인의' 탁월한 노력 혹은 습관을 통해 형성되고 함양된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 실천이라는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하우어워스는 덕의 공동체적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덕의 문제를 공동체적 맥락에서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이 성경의 내러티브에 따라 성만찬을 포함한 교회의 공동체적 실천 전통에 참여함을 통해 함양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하우어워스는 내러티브와 공동체적 배경 안에서 삶의 성화에 대한 기독교적 확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⁴⁸⁾ 이처럼, 하우어워스가 내러티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덕스러운 삶의 형성에서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의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가 그토록 강조하는 평화가 기독교의 덕 윤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일까를 두고 상이한 관점들이 제시될 여지는 충분하다. 솔직히, 평화를 교회윤리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덕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일 듯싶다. 물론, 하우어워스가 평화에 주목한 것이 현대사회의 윤리적 정황 즉 갈등과 전쟁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수의 비폭력 평화의 정신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는 것 자체는 과소평가될 수 없는 대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우어워스가 평화를 강조한 것을 두고 그의 맥락 즉 교회와 예수 내러티브라는 배경으로부터 독립시켜 이해하거나 평화운동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시도는 조심스러운 대목일 수 있다. 평화를 위한 관심이 하우어워스에게서 중요한 의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평화'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평화는 교회의 덕목이요, 교회가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하우어워스의 강조점은 평화 그 자체가

48)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p.59

아니라, 교회에 맞춰져 있다고 보아야 할 듯싶다. 이는 하우어워스가 교회를 덕의 학교 혹은 덕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하우어워스의 윤리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평화’보다 ‘교회’가 본질적인 관심사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를 덕의 학교 혹은 성품이 공동체로 제안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도덕공동체 혹은 공동체적 행위자로서의 교회가 함양해야 할 덕목 중에서 ‘평화’라는 구체적인 덕목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기보다 ‘교회됨’ 그 자체를 교회가 세워가고 함양해야 할 핵심덕목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우어워스 자신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과제는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to be the church itself)이다.⁴⁹⁾ 심지어, 자유주의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넘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윤리의 궁극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하겠다.

이른바, ‘콘스탄틴적 결합 혹은 동화’(acomodation)의 개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대변해 준다. 하우어워스가 맥킨타이어의 자유주의 비판을 기독교적 맥락에 응용하여 현대사회와 교회가 ‘기독교국가’(Christendom)로 결합되어 있다고 진단했던 대목은 이러한 뜻에서 큰 의의가 있다.⁵⁰⁾ 교회와 시민사회의 도덕적 에토스를 연관 지으려는 현대기독교윤리학은 교회적 정체성의 상실과 기독교적 증인됨의 실패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하우어워스의 지적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정책과 전략을 제공하면서 사회와 동화 내지는 결합하기보다 교회로 하여금 기독교적 정체성 확립을 통해 대안 공동체가 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우어워스를 응용하자면, 교회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전략과

49) 『교회됨』, 30면

50) 이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9)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오히려 교회는 사회에서 교회 자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으뜸가는 사회적 책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의 '대조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교회됨 그 이상의 가치를 교회윤리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교회됨 그 자체를 넘어설 다른 그 어떤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없다.

Ⅲ. 나오는 말

'교회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회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윤리적 함의는 매우 크다. 교회윤리를 제안한 하우어워스에 대한 비판일변도의 접근보다는 그의 문제의식과 맥락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다. 하우어워스에 대한 비판의 문제 역시 기독교공동체주의와 덕 윤리의 기독교적 수용이라는 맥락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우어워스는 교회를 도덕공동체로 인식하고, '성화'의 개념을 덕 윤리와 연계시켜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덕성함양을 강조한다. 다만, 하우어워스가 좁은 의미의 성화개념을 사용했다는 점, 덕 윤리와 성화의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할 듯싶다. 또한, 평화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 해석이 요청된다. 덕의 학교이자 성품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함양해야 할 여러 기독교적 덕목들을 평화라는 특정 덕목으로 한정짓기보다는 '교회됨' 자체를 교회가 추구해야 할 덕목이자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 김현수.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비판적 읽기」. 『기독교사회윤리』(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1집, 2011.
-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집, 2010.
-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비추어 본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한국기독교학회, 2012) 79집.
- 홍성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선학사, 2005
-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Jennifer A. Herdt, *Putting on Virtue: The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 John F. Harvey, *Moral Theology of 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 문시영 역, 『교백록, 윤리를 말하다』. (북코리아, 2011)
-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6)
- Lewis S. Mudge, *The Church as Moral Community: Ecclesiology and Ethics in Ecumenical Debate* (New York: Continuum Publishing Group, 1998)
- L. Gregory Jones, *Transformed Judgment: Toward a Trinitarian Account of the Moral Lif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0)
- Philip L. Quinn, "Is Athens Revived Jerusalem Denied?" *Asbury Theological Journal* 45(1)
- Richard Taylor, *Ethics, Faith, and Reas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5)
-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9)
-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譯, 『교회됨』(북코리아, 2010)
- Stanley Hauerwas, *A Cross Shattered Church: Reclaiming the Theological*

Heart of Preaching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Stanley Hauerwas & William W. Willimon, *Resident Aliens: A provocative Christian assessment of culture and ministry for people who know that something is wro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9)

William Frankena, *Ethic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3)

논문투고일: 2012. 04. 25

심사개시일: 2012. 05. 16

게재확정일: 2012. 06. 22

• 국 문 초 록 •

교회됨이 절실한 때, 시민적 비난과 정죄와 심판을 통해 몰아세우기보다 교회가 윤리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려는 ‘교회됨’을 위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를 ‘덕의 공동체’ 혹은 ‘성품공동체’(a community of character)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성찰하였다. 소종파적 퇴거의 우려 등 하우어워스에 대한 비판일변도의 접근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그의 문제의식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 기독교공동체주의와 덕 윤리의 기독교적 수용이라는 맥락에 대한 종합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하우어워스는 교회를 도덕공동체로 인식하고, ‘성화’의 개념을 덕 윤리와 연계시켜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덕 윤리의 기독교적 수용 및 기독교공동체주의의 요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현대기독교윤리학이 콘스탄틴적 결탁에 흐를 것이 아니라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하우어워스 자신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하우어워스가 좁은 의미의 성화개념을 사용했다는 점, 덕 윤리와 성화의 연관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 등은 비판적 평가의 대상일 수 있다. 하우어워스가 평화의 덕목을 강조한 것을 두고, 결국 평화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평화를 교회의 대표적인 덕목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찬반논변이 필요할 듯싶다. 이 글에서는 덕의 학교이자 성품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함양해야 할 여러 기독교적 덕목들을 평화라는 특정 덕목으로 한정짓기보다는 ‘교회됨’ 자체를 교회가 추구해야 할 덕목이자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윤리적 성찰이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교회윤리, 교회됨, 기독교공동체주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교회, 성품의 공동체, 덕의 학교
